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코니아일랜드에서 발견된 만자 수사 지원 지시**

"어제 코니아일랜드 소재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Jewish Community Center) 근처의 벤치에서 또 다른 반유대주의 상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뉴욕에 있는 유대인 지역사회를 겨냥한 일련의 혐오스러운 사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이며, 이런 증오로 인한 행위가 점차 자주 발생하는 것이 새로운 정상의 기준이 되도록 허용할 수도, 허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뉴욕시 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을 도와 이 불쾌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인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합니다. 뉴욕주는 혐오에 기반한 연설, 상징 또는 폭력에 대해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포용 및 수용이라는 뉴욕의 가치를 지켜 이 광란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